

장기이식 대기 최장 5년4개월 기다리다 하루 5.2명꼴로 사망

8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나

“옵트아웃” 제도 도입해야

국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하루 5.2명꼴로, 8년 새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9일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10년 1만4595명, 2014년 2만 151명, 2018년 3만544명으로 8년 새 2.0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도 2010년 962명, 2014년 1120명, 2018년 1910명으로 같은 기간에 1.98배 늘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2010년 2.63명에서 2018년 5.23명으로 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이식 대기자 가증하는 만큼 장기기증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간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0년 268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사이 연간장기기증 희망등록도 2010년 20만1359명에서 2018년 10만801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장기를 이식한다고 해도 일부 장기는 대기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 상황이다. 신장이식은 2018년을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이 1955일(약 5년4개월)이나 된다. 또 심장, 간장, 폐도 이식까지 각각 234일, 155일, 116일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옵트 아웃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 사망 후에



이식용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옵트-아웃 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사망 이전에 별도의 장기 기증 동의 의사가 없었으면 사망 후에도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놓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기증에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서 장기기증 적합 환자에 대한 가족 동의율은 2014년 52%에서 지난해에는 35% 수준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가족 중 선순위 동의자가 동의한 이후에 다른 가족이 나서 기증을 철회하는 비율도 11.8%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발·다리도 이식 가능”… 복지부, 선정 기준 마련한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발과 다리가 이식이 가능한 장기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다리의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특성이 같은 손·팔과 동일한 기

준으로 신설했다.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의 사립백혈구형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경우 선정된다. 만약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 이식의료기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

명 이상의 인력을 두고 있어야 하고,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 액 학회 참가… 우수성 알려

부스 전시·단독 심포지엄 개최
FDA 승인… 효능·안전성 입증

대웅제약이 지난 5~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미용성형학회 ‘IMCAS Asia 2019’에 참가해,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대웅제약은 9일 이번 학회에서 부스 전시와 단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나보타의 우수성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미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글로벌 임상에 참여했던 미국 피부과 전문의 헤마 선다람이 직접 심포지엄의 좌장 및 연사로 나서, 210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미국, 유럽 및 캐나다에서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선다람은 “임상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으로 제품 선택 시 근거 확인을 통해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대웅제약이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국 FDA 승인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서 주름개선 효과 및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6일, 학회 행사와는 별도로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6개국 30여명의 미용성형 관련 분야 의사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나보타 에스테틱 포럼’도 개최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나보타 에스

테틱 포럼은 대웅제약이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나보타 학술교육프로그램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국제학회 및 자체 학술포럼을 통해 전세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FDA 승인을 통해 입증받은 제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8일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개인 텀블러를 받고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전직원에 ‘마이텀블러’ 지급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동참

다회용 컵 독려·페트병 자제

이 새겨져 있다”면서 “직원들이 세상에 하나 뿐인 자신의 텀블러로 생활 속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더욱 뜻깊은 기념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원내 편의시설 이용 시 텀블러 이용하기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일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시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물품 구매시 재활용 제품(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호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 기자

식약처, 올해 독감백신 2500만명분 공급

소아·노인·임산부 등 우선접종 권장

보건당국이 올해 독감백신 2500만명분을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 신청이 몰려,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이 접종 대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을 권장한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내 허가되어 있는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그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독감 유행에 앞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사노피-아벤티스, 파비앙 슈미트 대표 선임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총괄

업 개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사노피는 이번 파비昂 슈미트 대표의 선임이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노피가 추구해온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비昂 슈미트 대표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거쳐 지난 2006년 사노피 본사 재무팀에 합류했다. 그는 2010년 아시아로 이동한 이후, 2016년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아태지역 재무 총괄을 거쳐 1년 만에 전 세계 90개국이 포함된 인터내셔널 지역의 재무 총괄로 이동, 한국 등 90개국의 재경업무를 관리해 왔다. 또 아시아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부 통합 및 사

/이세경 기자